

떨어진 군기 어떻게 주워담을 것인가



문형철 기자의
어수선하軍

과도한 군기잡기는 장병들을 괴롭게 만든다. 그렇다고 군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군기는 군인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군의 군기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엎질러져 주워담기 힘든 상황처럼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폐기 넘치는 육군 병이 전철에 올랐다. 전투복 상의를 입지 않은 그의 가슴에는 'R.O.K.A (대한민국 육군의 약어)'가 새겨져 있었다.

기능성 의류인 반팔 이너웨어만 착용하고도 그는 당당했다. 전투복 하의에는 벨트도 없었다. 그에게 다가 가방이 열려진 것을 알려주며 전투복 상의를 입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기자에게 씩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흥대입구역에서 기자가 전철을 내릴 때까지 전투복 상의를 입지 않았다.

군인복제령과 군인생활동강령

을 위반하고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한국군의 모습이 됐을지 모른다.

지난해 경기도 모처의 유명 제과점 겸 카페에서 상사계급이 달린 베레모를 영등이 뒷쪽에 찔러넣고 디지털 위장무늬의 이너웨어 차림으로 부하인 여군과 담소를 나누는 부사관을 목격했다. 고위직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재작년 10월 경기 성남에서 열린 ADEX 행사장에 걸쳐 들어선 입장행렬 속에서는 군모를 벗고 상의를 살짝 풀어헤친 영관급 고위장교들도 자주 목격됐다.

같은해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린 계룡 시내에서 노신사가 군모를 착용한 군인들을 불잡으며 한 말이 떠올랐다. "퇴역 대령이오만, 계룡에 살면서 십수년 간 자네들처럼 복장규정을 지키는 간부들은 처음 보오."

한국군의 군기가 어쩌다가 지위고 히를 막론하고 영망이 되었을까. 사람이 많아 탈이 많다는 육군만의 문제도 아니다.

추석연휴간 해군 모부대에서는 이 등병이 외출증도, 간부 사전승인도 없이 담배를 사러가겠다고 위병소를 나가다 저지당한 일이 있었다. 심각한 군기해이 현상이 전군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를 허용하

고, 두발을 길게 허용하는 등 지나친 규정완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유럽의 징병제 국가 장병들이나 이스라엘 징집병, 모병제인 미군들이 더 엄정한 군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를 자율적으로 잘 실행하는 모습은 선진병영을 만들기 위해 꼭 배워야 할 덕목이다. 그렇지 만 한국군은 자율적 군기를 세우지 못할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오랜 악습이었던 구타와 얼치례 등에 길들여진 군대문화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실, 야전의 지휘관들은 고민이 많다. 부하들의 자율과 권리는 보장하면서 기본적인 의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군인들의 군기위반을 신고하고 포상을 받게 하던가, 이도 아니면 군인 모두가 사복으로 출타하는 것이다.

군사경찰이 군기위반 단속도 하지 못하고, 민간법원은 군기위반자를 가볍게 처벌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엄정한 군기의 확립은 영원한 난제로 남을 것이다.

/captinm@metroseoul.co.kr

424억 투자… 2024년 수소트램 국내 양산

산업부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 착수
내년까지 모터·제동장치 등 부품 제작

전철을 대신해 차세대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트램이 2024년부터 국내에서 양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24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네쏘용 수소연료전지(95kW) 4개에 해당하는 380㎾급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4대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트램 시스템 통합·검증기술' 분야는 철도전문기업 현대로템이 주관하고, 맥시스(모터), 코아칩스(센서), 푸름케이디(제동), 에스제이스틸(차체), 에이엔엠메카테(냉각) 등 중소철도부품업계 5곳도 참여한다.

2022년까지 수소트램에 탑재할 모터와 제동장치 등 부품을 제작하고, 2023년엔 제작된 부품을 통합해 수소트램 실차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수소트램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 기술' 분야는 울산TP가 주관하고, 코비즈(비즈니스모델 발굴), 범한퓨얼셀(수소충전소 구축), 가스안전연구원(수소충전소 안전검증), 울산대(수소트램



수소트램 컨셉트카

/산업부

최적운행패턴) 등 인프라·안전·분석기관 4곳이 참여한다. 2022년까지 수소트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2023년부터 울산시 유류선로(울산역↔울산항)에서 누적 2500㎞ 이상 주행하면서 연비 등을 고려한 최적주행패턴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수소트램 양산을 개시하고 국내에선 울산과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유럽과 동남아 등 트램수요가 있는 해외 판로를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수소트램은 차량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때문에 전철과 달리 전력설비 등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고속철도 기준 수소트램 전력설비 건설비는 1㎞당 31

억원 수준이다.

또, 배터리방식의 전기트램은 주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고중량, 고가인 배터리체중도 증가해 무게·부피와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충전시간도 긴 단점이 있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거나 주행빈도가 높은 경우 수소트램이 전기트램에 비해 강점이 있다.

수소트램은 수소차와 비교해 고내구성이 필요한 고난도 분야로, 글로벌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확고한 선도 기업도 없다.

다만,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알스톰은 2018년부터 독일에서 시험운행 중이며,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은 토요타와 협력해 올해까지 수소트램 개발은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험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이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수소트램 상용화에 성공하고 글로벌 친환경열차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 중 동력원을 수소연료전지로 대체 가능한 시장은 2025년 7000억원에서 2030년 4조원, 2050년 18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책·국방

산업부, 英과 산업·에너지 협력강화 논의

박진규 차관, 영국 BEIS와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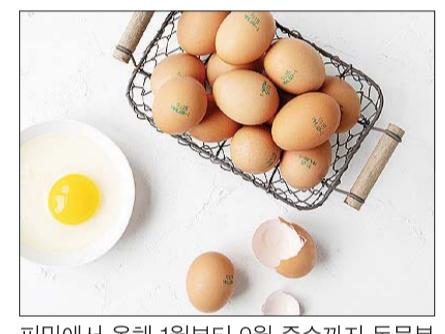


'한-영 산업·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 한다. 박 차관은 또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세계 최초로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한 영국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앞서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KOTA 영국 투자홍보대사인 팀 요우 등 산업·에너지 전문가와 면담을 갖고 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 24일 엔 현대차그룹과 함께 영국내 전기차 공동R&D 현장을 방문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 비즈니스 현황도 점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퍼밀, 동물복지 제품 판매량 3.5배 증가



퍼밀에서 올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동물복지 관련 제품 판매량이 3.5배 이상 증가했다.

/식탁이있는삶

식탁이있는삶이 운영하는 푸드플랫폼 퍼밀은 올해(1월 1일~9월 15일) 동물복지 및 유기농 관련 제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배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가정 내 활용도가 높은 계란에

서 동물복지 식품 수요가 늘었다. '동물복지 자유방목유정란', '동물복지 구운계란'은 각각 판매량이 128%, 253% 씩 증가했다. 동물복지 자유방목유정란은 한국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청솔다정원과 로가니파크에서 공급 받고 있으며 일반 양계의 100배에 달하는 부지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닭들이 생산한다. 구운란의 경우 전문 생산자가 직접 원란을 선별하고 숙성과정을 거쳐 맥반석에서 구워내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밀크온밀크 동물복지우유'도 같은

기간 112%의 판매고를 올렸다. 동물복지, HACCP, 무항생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방목장 운영으로 케이지 없이 쾌적한 사육 환경으로 젖소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또한, 섬유질이 많은 조사료 위주의 섭취 방식을 택해 반죽 동물인 젖소의 습성을 고려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환경부, 내년 7월부터 기준 적용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26~52배 수준이다.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도 내년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스히트펌프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 기한은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사용 중인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 가스(LPG)를 사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이다. 지금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부터 관리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